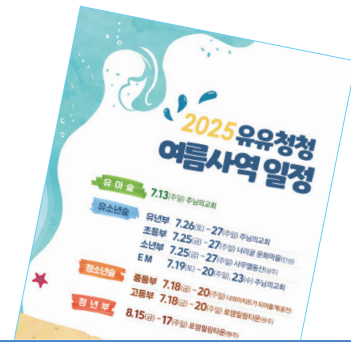




오늘의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9

오늘의 주요 기사

2 하나님의 선교 특집
3-5 키르기스스탄 비전트립
6-7 LAMS 과정 후기

8-9 청소년숲 여름사역
10 유소년숲 여름사역
10-11 자기돌봄세미나

11 아름다운부모학교
12-13 (사)섬김과 나눔
13 교사일기

14 성도의 시
15 십자말풀이
16 공동체소식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세상 속에 거룩함을 드러내다”

올해로 주님의교회가 창립 3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7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의교회는 언제나 한 가지 고백 위에 세워져 왔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 기준의 ‘성장’이나 ‘성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거룩한 씨름’을 계속해왔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애써온 날들이었습니다. 가정을 신앙의 첫 자리로 세우고, 소그룹과 예배와 나눔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끊임없이 훈련해왔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목회자도, 시무장로도 잠시 맡은 자리에서 충성할 뿐입니다. 정해진 임기가 끝나면 기쁘게 내려놓고, 다시 주님만 높이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유한 건물이 없습니다. 학교 강당을 빌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산의 절반을 교회 밖에 흘려보내며,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고자 작은 실천들을 이어왔습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만이 높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무기명의 헌금처럼, 우리의 이름은 숨고, 주님의 이름만 빛나기를 구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37년을 걸어왔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이 길은 우리의 힘으로 걸은 길 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신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유산처럼 전하며, 가정과 교회와 세상, 이 세 자리에서 분리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낮아지고, 더욱 투명하며, 더욱 거룩해지는 공동체로 주님의교회는 앞으로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걸어가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여전히 주님이시며, 우리의 사명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또 한 세대를 살아내고 섬기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교회 창립 37주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 특집

가정에서 시작되는 섬김(섬김으로 본이 되는 가정) (요 13:35)

2025년 함글함글은 올해 교회 표어인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에 맞게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이야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지난 호 ‘복음을 전하는 가정’에 이어 이번 호에는 ‘섬김으로 본이 되는 가정’에 대해 나눕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과 섬김의 시작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35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겸손히 발을 씻기시며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그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섬김의 사랑, 곧 일상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복음적 삶의 실천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곧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는 이 사랑과 섬김의 삶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가정은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그러나 때로는 가장 이기적으로 살아가기 쉬운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섬김은 곧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이 땅에 실현되는 시작점입니다.

서로를 섬기는 삶이 주는 영향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삶) 가정은 서로 다른 성격과 감정을 가진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섬김은 그 모든 틈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행동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섬길 때, 가정은 더이상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있는 거룩한 성소가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는 삶) 말보다 강한 영향력은 언제나 ‘삶’에서 나타납니다. 섬김은 말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자연스럽게 ‘사랑이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구나’라고 배우게 됩니다. 섬김은 아이들의 가치관과 인격을 세우는 가장 강력한 신앙 교육입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 가정은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화목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알아보게 됩니다. 즉, 가정에서부터 나타나는 섬김의 삶이야말로 세상 앞에서의 복음 전도의 출발점입니다.

(관계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삶) 섬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가정 안에서 갈등과 오해가 쌓여 있을 때, 먼저 손을 내밀어 섬기는 사람을 통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감정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설 때, 진심은 전해지고 신뢰는 회복됩니다. 이처럼 섬김은 용서와 화해의 통로가 되어, 깨졌던 가족 간의 관계를 다시 하나 되게 하고, 가정을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시켜 줍니다.

섬김을 실천하는 가정이 되기 위한 실천 방안

(가정에서 먼저 인사하고 감사하기) 섬김은 작고 일상적인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잘 잤어?”, 식사 후 “고마워”, 실수했을 때 “미안해”와

같은 말은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먼저 말 걸고, 인사하고, 감사하는 문화를 만들면 섬김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역할이 아니라 관계로서 바라보기) 가정에서 서로를 역할(아빠, 엄마, 자녀, 가장 등)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한 사람으로 바라볼 때, 섬김이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권리보다 상대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정기적인 ‘가족 섬김의 날’ 만들기) 가정의 문화는 의도적인 실천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매달 한 번은 가족이 함께 집안일을 나누어 하거나, 외부에 나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가족 섬김의 날’을 정해보세요. 공원, 등산로, 학교 주변 등 마을 환경을 가족이 함께 청소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로당, 요양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섬김의 반복이 삶의 리듬을 바꾸고,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깊게 만들어 줍니다.

(섬김을 위한 기도 훈련) 가족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섬김의 마음을 주십니다. 매일 기도 제목에 ‘오늘 누구를 어떻게 섬길까요?’를 포함해보세요.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나에서 너로,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결론: 세상에 본이 되는 가정, 섬김에서 시작된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곧 섬김으로 표현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사랑을 갈망하고, 섬김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정 안에서부터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삶은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선교적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은 섬김을 삶의 언어로 삼는 가정입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실천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삶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부터 사랑이 피어나고, 그 사랑이 섬김으로 실현되어, 이웃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진원 안수집사 / 함글함글



2025 주님의교회 비전트립
키르기스스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걷는 길

2025년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주님의교회 비전트립팀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걷는 길'이라는 주제로 키르기스스탄의 오쉬 지역과 잘랄라밋, 그리고 창겟 마을에 이르는 선교 여정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비전트립은 단순한 방문이 아닌, 한사람·이나라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며 동역하는 귀한 시간이었으며, 그 땅의 문화를 배우고 복음의 씨앗을 함께 뿌리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비록 소수의 인원이었지만, 준비 단계부터 귀국까지 두 선교사님과 박준범 목사님, 그리고 5명의 팀원이 서로를 섬기며 하나되어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직분과 역할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쉬 세종학당에서의 한국문화체험, 잘랄라밋 새언약 교회에서의 어린이 성경캠프, 창겟 마을에서의 아웃리치 등 다양한 현장 사역은 그 자체로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종학당에서 현지 학생들과 함께한 김밥 만들기, 에코백 꾸미기, 윷놀이 등은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 웃음과 언어, 마음이 자연스럽게 오간 귀한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강화된 종교법으로 인해 예수님을 전할 수 없지만 한국의 문화를 알리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고,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잘랄라밋의 어린이 성경캠프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따뜻한 복음의 메시지를 아이들과 나누며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시간을 보냈고, 한사람 선교사가 틀니 봉사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창겟 마을에서는 70여 명의 어린이들과 주민들에게 후원품을 나누며 사랑을 전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언어와 문화를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여정은 우리가 무언가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그 땅의 숨결을 함께 느끼고, 한사람·이나라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열매 맺어가는 복음의 현장에 동역자로서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마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후원과 중보로 함께해 주신 주님의교회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재원 안수집사 / 키르기스스탄팀 팀장



2025 주님의교회 비전트립
키르기스스탄

하나님의 관심은 땅끝까지- 부르심의 자리를 따라

비전트립 여정을 마치며 땅끝까지 닿아있는 하나님의 관심을 발견합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부르심의 자리로 떠나야 합니다.

첫째, 부르심의 자리는 불편을 자청하는 자리입니다.

현지의 선교사님들은 비교적 안락한 삶의 자리를 떠나 불편을 자청하는 자리에서 치열한 선교를 살아갑니다. 우리 비전트립팀 또한 짧지만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 발을 내딛어 보았습니다. 에어컨은 없고, 차량은 오래되었으며, 엘리베이터는 사치입니다. 깜빡 잘못하면 절벽으로 떨어지는 창겟마을의 좁은 도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둘째, 부르심의 자리에는 순수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한국어학당과 새언약교회 성경캠프에서 만난 키르기스스탄 학생들은 순수한 미소를 갖고 다가왔습니다. 창겟마을 70여명의 어린이들은 학용품 받으며 수 KM떨어진 산을 넘어 학교로 모였습니다. 이번 비전트립 기간 동안 우리팀이 자주 말한 단어는 ‘순수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

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의도적으로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떠나라 하실 때에 순종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셋째, 부르심의 자리는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언제 키르기스스탄에 와보겠냐!”팀원 중 한분의 고백은 당연하지만, 참 의미 있는 말로 다가왔습니다. 주신 ‘복’을 움켜쥐면 그곳은 막혀 물이 더 이상 흐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신 것들을 나를 통해 세상으로 흘려보낼 때, 나를 통하여 주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키르기스스탄 오쉬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순수한 눈망울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한사람, 이나라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키르기스스탄 땅에 꼭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가부장적 전통과 히잡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아는 이들이 왕성하게 일어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준범 목사

2025 주님의교회 비전트립
키르기스스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린 복음의 씨앗

지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걷는 길”이라는 주제 아래 주님의교회 비전트립 팀이 키르기스스탄의 오쉬 지역과 잘랄라뱃, 그리고 창겟 마을을 다녀온 여정은 깊은 감동과 함께 제 신앙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비전트립은 단순히 봉사활동이나 해외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인원으로서 시작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두 분의 선교사님과 박준범 목사님, 그리고 5명의 팀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했던, 귀하고 의미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한사람’, ‘이나라’ 선교사님과 함께했던 동행의 시간은, 그 땅의 문화를 배우고 복음의 씨앗을 함께 뿌리는 귀한 과정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그들의 모습은, ‘나’를 넘어 ‘우리’가 되어 함께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세종학당 학생들과의 만남은 저에게 특별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 음식 김밥 만들기, 예쁜 에코백 꾸미기, 윷놀이 등 한국 문화를 매개로 소통하고 사랑을 전한 시간은, 말씀만이 아니라 삶의 모습과 문화로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잘랄라뱃 새 언약교회와 창겟 마을의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은, 순수한 영혼들

과의 교제를 통해 오히려 제가 더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여정은 한국의 문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창겟 마을의 70여 명의 어린이들과 주민들에게 작은 후원과 사랑을 전하고 받은 환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어와 문화를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은, 진정한 선교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 여정은 분명 우리 팀이 무언가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그 땅에 우리가 순종하며 동참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한사람’, ‘이나라’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열매 맺어가는 복음의 현장을 보며 그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꽃 피어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그 날을 꿈꾸어 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여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며, 이 비전트립이 앞으로 계속해서 귀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이 여정을 통해 얻은 신앙적 깨달음을 바탕으로, 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 안수집사 / 키르기스스탄팀



2025 주님의교회 비전트립
키르기스스탄

작은 섬김, 큰 은혜

비전트립 지원자가 부족하여 떠날 수 있었으나 했습니다. 세종학당에서 현지 학생들과 함께한 김밥 만들기 시간은 즐겁고 감사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새언약교회 어린이 캠프 1,2부까지 찬양과 놀이와 달란트 시장까지 혼신의 힘과 마음을 다하여 사역하는 동역자들 옆에서 저도 작은 미용봉사로 기쁨을 보태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감사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창겟마을 방문을 끝으로 바쁘고 빡빡한 일정을 끝내고, 비전트립 평가회에서 우리 모두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받은 은혜를 나누며, 회개와 기쁨의 눈물을 쏟아내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위하여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최귀남 권사 / 키르기스스탄팀

2025 주님의교회 비전트립
키르기스스탄

“보냄받은 자”로 키르기스스탄 오쉬에 서다

생애 첫 비전트립을 키르기스스탄 오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교에 직접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23년 “퍼스펙티브스(Perspectives)”하나님의 선교는 일부 선교사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일관되게 실행하고 계시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자의 위치에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야 한다고 깨달음을 주셨기에 이번 키르기스스탄 선교 현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땅에 한사람·이나라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틀니 봉사료, 세종학당 한국어 사역으로 봉사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 팀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국문화체험”행사(김밥 만들기, 공기놀이, 에코백 만들기, 윷놀이)와 조별 오쉬 시내 탐방(시장, 공원, 오쉬대학, 박물관 등)은 생생한 현장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한국을 닮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새언약 교회 성경캠프”와 “창갯마을”에 학용품과 도서를 전달하면서 한사람·이나라 선교사님과 현지 사역자가 하나로 뭉쳐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의 빗장을 천천히 열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마을 주민들의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역 주민들과 한사람·이나라 선교사님 가족과 한국의 비전팀이 어우러진 한마당 축제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팀 리더이신 말씀 총만, 사랑 총만 박준범 목사님, 한국을 넘어 키르기스스탄까지 흘러 넘친 최귀남 권사님의 섬김과 사랑, 10년 넘게 해외비전트립을 사랑하는 신성철 안수집사님, 언어의 장벽과 일 처리에 막힘이 없는 재주꾼 박재원 안수집사님, 젊고 발랄하고 믿음 좋은 인기쟁이 서여람 자매와 함께한 6명 오쉬 팀은 최고였습니다.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키르기스스탄의 산야와 그들의 영혼과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말씀을 붙들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자녀(예린, 예후, 선후)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미정 집사 / 키르기스스탄팀**



2025 주님의교회 비전트립
키르기스스탄

하나님의 회복제, 키르기스스탄에서 받은 은혜

비전트립에서 돌아온지도 벌써 일주일이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저를 갑자기 왜 키르기스스탄 땅으로 보내셨는지 의문이지만, 감사한 것은 그곳에 있던 하루하루들이 휴학생인 제게 엄청난 회복제였던 것입니다.

유쾌하셨던 권사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술쟁이야. 내가 살면서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아름다

운 키르기스스탄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어떻게 와봤겠어?”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뜻에 하는 수 없이 끌려온 절 겸손케 하였습니다.

말처럼 아껴주셨던 팀원분들과 어떤 말로도 부족한 자연경관, 순수하고 사랑스런 선교사님의 삼남매와 현지 아이들까지 모든 것이 저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자 그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서여람 / 키르기스스탄팀**

하나님의 선교 LAMS 과정

존재에서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정체성

하나님의 선교 LAMS는 성공회 사제이자 구약학자이며, 선교 신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J. H. Wright)의 책 『하나님 백성의 선교(The Mission of God's People: A Biblical Theology of the Church's Mission)』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왜 존재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전통적으로 신학은 선교적 인식을 결여한 채 이론적으로만 발전해 왔고, 선교는 단단한 신학적 기반 없이 실용주의적 방법론에만 집중해 온 했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는 신학이 선교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선교가 신학적 기초 없이 수행되는 기형적인 결과를 낳았는데, 라이트는 이 두 영역을 통합하여 신학과 선교의 분열을 극복하고자 시도한다. 그는 선교를 ‘하나님께서 온 창조 세계를 위한 자신의 위대한 목

적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과, 그 목적에 협력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모든 일’이라고 정의하여 선교가 하나님 백성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궁극적 목표라고 주장한다.

라이트는 선교를 재정의함으로 복음 전도를 사회적 책임이나 창조 세계 돌봄과 같은 다른 기독교적 책임보다 우위에 두는 전통적인 복음주의의 우선순위를 해체하고 그리스도인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목적 아래 재평가하도록 독자들에게 촉구한다. 그는 복음 전도와 사회적 실천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기도와 성경 읽기처럼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고 주장하며 ‘행함’보다 ‘존재’를 강조하고 ‘존재’에서 ‘행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에서 나온다는 것이 라이트의 주장이다. <7면에 계속>

하나님의 선교 LAMS 과정

LAMS 교육을 통해 본 일상 속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교 LAMS (Life As Mission School) 과정은 선교의 시야를 넓히고, 믿음과 삶, 선교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었음을 깨닫는 좋은 교육 시간이었다. LAMS 교육은 지난 4월 하순부터 수요일예배를 겸해 8주간 진행되었고,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람에게 번창하며 다스리라고 축복하셨다. 이는 지배가 아닌 돌봄과 지킴으로 다른 피조물과 함께 살롬을 이루어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죄의 역사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원모습이 훼손되고 왜곡되었으므로, 모든 일상에서 이를 바로잡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우리의 사명이요, 선교다. 따라서 각자의 일, 환경에 따라 선교의 외양은 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지향점은 동일하며,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현장이 된다(Life as Mission School).”

이렇게 보면 종전 우리가 가졌던 지리적 선교지역 구분이 없어지고, 전업 / 전문 선교사가 아닌 우리 모두 선교사가 되며, 말보다 삶 자체가 선교의 도구가 된다. 처음에 선교는 뭔가 특별하고 다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성경에서 ‘빛과 소금’의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일관되게 강조함을 깨닫고 선교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했다.

이와 관련 강사님이 들려준 인도 선교사 시절 일화는 펍 감동적이다. 인도의 ‘박트 싱’목사는 캐나다 유학 중 시크교에서 기독교로 개종, 인도에 10,000개 이상의 자립교회를 세운 저명한 복음전도자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인물을 키워낸 사람이 다름 아닌 그의 캐나다 유학 시절 하숙집 아줌마였다. 그녀는 늘 ‘질그릇에 담긴 보배’(고후 4:7)를 묵상하며 이를 증거/실천하는 삶을 살았고, 심목사가 이에 감동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감회가 들었고, 나도 신실히 살아가면 부지불식간에 선교의 작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다는 소망도 생겼다.

그러다 문득 삶을 통한 선교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압축성장 끝에 선진국에 오르고, 한류열풍 등으로 문화적 자긍심도 높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심한 경쟁, 골 깊은 이념 갈등 등으로 일상의 삶이 결코 녹록치 않다. OECD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고, ‘살아 낸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이 이를 반영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은 해외 선교단체를 후원하거나, 단기선교를 떠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이에 대해 강사님은 두 가지 중요 포인트를 알려주셨다. 첫째, LAMS가 우리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선교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라는 점이며, 둘째, LAMS의 기본은 사업 등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나처럼 은퇴한 시니어도 많은 것을 계획치 않고, 일상에서 이웃에게 친절을 아끼지 않고, 규정과 법을 준수하는 것도 LAMS의 좋은 출발점이 되겠다 싶었다.

여러모로 기존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좋은 교육 과정이었다. 아직도 마지막 시간에 던진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의 성경구절이 머리에 맴돈다.

LAMS 교육을 통해 개인적으로 많은 깨달음과 도전이 있었지만, PPT 자료와 강사님들의 강의가 에센스 위주로 간결하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아쉬움, 워크북과 강의의 일관성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정희전 집사 / 2교구



<6면에 이어> 라이트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스스로가 속한 이야기(구원사)를 알고, 창조 세계를 돌보며, 열방의 복이 되어, 하나님의 길을 행하고, 구속받은 대로 구속적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근거하여 선교의 실천이 나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삶의 현장과 공적 영역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예배를 통해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끈다. 우리는 라이트의 주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모두가 선교사이고, 선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물론 라이트가 주장한 선교 신학의 근거가 구약에 집중되어 있고,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의 선교에 관한 논의가 생략되어 있으며, 총체적 선교에 대한 강조가 복음 전도의 긴급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라이트의 책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정의와 선교사로서의 실천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가 주장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감으로 아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의 기쁨으로 인도하는 선교사다. 이제 우리가 선교사임을 분명히 알았으니, 남은 것은 선교사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이트가 말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선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실천이 모든 주님의교회 성도님들의 삶에서 저절로 표출되기를 소망한다.

이태욱 목사

하나님의 선교
LAMS 과정

거룩하게 사는 법 - LAMS 겨자씨 교육을 마치고

“거룩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레 11:4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거룩한 삶을 꿈꿉니다. 파송의 노래와 함께 축도를 받으면서 사회 속에서 거룩하게 살기로 마음먹습니다. 피곤한 몸 일으켜 새벽기도를 나오고, 늦게까지 힘든 사역을 섬기면서 이것이 거룩한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 막상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니, 같은 교회에 다녀도 너의 “거룩”과 나의 “거룩”이 달랐습니다. 국립국어원이 펴낸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거룩하다] (형)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니, 너희도 나를 닮아 뜻을 매우 높게 하고 위대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혼란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진행된 “하나님의 선교-LAMS 교육”8주 과정에서였습니다. 작년 가을에 있었던 교육을 전 교인 대상으로 확대한 것으로, 겨자씨장을 통해 겨자씨 식구가 동참할 수 있는 교육이었습니다. 이 교육과정의 교재는 영국의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 백성의 선교>였으며, 하나님 백성의 현실과 소망에 대해 깊은 관록과 신학적 바탕을 두루 갖춘 선교사님들이 다양한 해외 선교 체험을 예화로 들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큰 흐름은 우리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있는가,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무엇을 알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구약 전공이었던 까닭에, 그리고 생각보다 깊은 성경 전체에 대한 통찰과 식견을 요구하는 바람에, 처음에는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번 교육과정 동안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만났습니다. 바로 <레위기> 19장의 발견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는 법”이라고 붙였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신 후 “거룩하게 사는 법”을 일타 강사처럼 “밑줄 째, 별표 땡”하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윤리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공의에 대하여 사례별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예컨대 이웃에 대하여는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의 사정을 살피고, 인색하지 말라”고 하시며,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재판에서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나 세력 있는 자를 공평하게 대하며, 공의로 재판하라,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시며 공의를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거룩하게 사는 법”을 지키지 않아 결국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은 일타강사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고 하셔서 하나님을 삶의 모델로 삼을 것을 강조하신 데 이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니요 선지자니라”(마 7:12)라고 “거룩하게 사는 법”의 원리를 밝히셨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큰 계명이 없느니라”(막 12:31)라고 하셔서 한 문장으로 “거룩하게 사는 법”을 요약하셨으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라고 하여 “일상에서의 실천이 핵심”임을 족집게 정답처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하게 사는 법”은 사실 일상에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요, 선교이며, 일상의 거룩함인 것임을 알았습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이 교육과정 동안, 하필 우리 겨자씨 식구들 가운데 여러 분이 거동이 불편한 여러 부상을 입어 지속적인 모임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장님이 헌신적으로 매일 아침 큐티를 나누고, 매주 교육 교재와 동영상을 전파하면서 수시로 소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 덕분에, 이 귀한 교육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섬김 역시 거룩한 삶의 하나였겠습니다.

장경식 안수집사 / 2교구

청소년
몬탈반 비전트립

보내는 선교, 함께하는 교회

주님의교회 청소년숲이 오는 8월 3일(주일)부터 7일(목)까지 필리핀 몬탈반에 위치한 Light of Hope Christian Academy(LHCA)를 방문하는 비전트립(단기선교여행)을 앞두고, 지역 성도들과 함께하는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바자회는 6월 22일(주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김마리아회관 지하1층 중예배실 로비와 1층 입구 로비에 서 진행되었으며,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나눔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자회의 목적은 비전트립 기간 중 현지 교회를 위한 선교 및 후원을 위한 기금 마련이었습니다. 청소년숲은 이번 바자회를 통해 총 700만 원의 모금 목표를 세웠고, 성도들의 정성과 헌신으로 필요한 금액을 온전히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포장하고 준비한 L패션후르츠청, 수공으로 제작한 커피 드립백 세트, 시원한 더치커피, 필리핀 현지 과자세트, 청소년숲의 정체성을 담은 캐릭터 자석 굿즈 등 다양한 품목이 판매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선교 바자회는 단순한 기금 마련을 넘어서, “보내는 선교”의 주체로서 모든 성도가 함께 동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판매 준비부터 정리까지 청소년과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선교적 정체성과 공동체 정신을 함께 훈련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비전트립의 주제는 누가복음 4장 18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를 주제말씀으로 하여 “한국 너머, 로로하는 10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국 너머: 한국 안에, 자기 자신 안에 몰두했던 시선을 그 너머로 돌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만나다. 지리적 경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경선 너머로 나아갈 때 나의 ‘한계’와 ‘존재’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임을 이해한다.

로로하는: 진정한 위로는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단기선교를 마친 이후에도 국경과 시간을 넘어 늘 함께하시는 성령하나님을 통해 그들이 위로받고 신앙적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한다.

10대 그리스도인: 10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역자가 되어, 우리의 일상, 한국,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한다. 나아가, 문화와 언어가 다른 10대 그리스도인과 함께 호흡하며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고 꿈꾸는 10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

이번 비전트립에는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명, 청년교사 7명, 장년교사 2명, 교역자 3명 등 총 34명이 참여하며, 현지 아동 및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 말씀 나눔, 문화 교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자	장소	사역 일정
8/3 (주일)	한국 ▶ 필리핀	출국 : 오후 7시 15분 ~ 오후 22시 35분 교회에서 함께 대형 버스 타고 출발
8/4 (월)	필리핀 몬탈반	첫째 날 <환대> 09:30 ~ 11:30 준비(학교, 마을 탐방) 11:30 ~ 13:00 점심식사 13:00 ~ 17:00 부스 사역(팀빌딩) 17:00 ~ 19:00 저녁 식사(연합식사) 19:00 ~ 저녁 예배
8/5 (화)	필리핀 몬탈반	둘째 날 <연합> 09:30 ~ 11:00 준비 11:00 ~ 12:00 점심식사(연합식사) 12:00 ~ 18:00 수중 운동회 17:00 ~ 19:00 저녁식사(연합식사) 19:00 ~ 저녁 예배
8/6 (수)	필리핀 몬탈반	셋째 날 <상호작용> 09:30 ~ 11:30 피딩 사역1(교회 속한 마을 피딩) 11:30 ~ 13:00 점심식사(연합식사) 13:00 ~ 16:00 피딩 사역2(쓰레기산 피딩) 16:00 ~ 19:00 저녁 식사(연합식사) 19:00 ~ 20:00 연합 저녁 예배
8/7 (목)	필리핀 ▶ 한국	귀국 : 오후 12시 5분 ~ 오후 16시 55분 09:00 ~ 10:30 피드백 및 마지막 정리 10:30 ~ 12:00 마닐라 공항 출발 12:00 ~ 14:00 체크인 대기 14:10 ~ 19:25 한국으로 입국

필리핀 현지 교회의 중학생 약 40명



이번 바자회와 비전트립을 통해 청소년들이 단지 세상을 ‘도움이 필요한 곳’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공간, 그리고 복음을 나누는 ‘선교의 삶’의 현장으로 경험하길 교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요청하며, 이번 비전트립이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선교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소년숲



청소년
여름수련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소년 시기는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부모님과 자녀들이 이 시기를 학업과 진로 준비의 때로만 여기지만, 저는 이 시기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경험 없이 단지 공부와 성공만을 향해 달려간다면, 결국 마음은 지치고 삶의 의미는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가장 소중한 만남은 학원도, 스펙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 우리 아이들의 평생을 이끄는 진짜 힘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수련회에서는 올 여름 2박 3일 동안 중등부, 고등부가 각각 수련회를 떠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여름, 우리 청소년수련회 중등부와 고등부 친구들이 어떤 은혜의 여정을 떠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방윤주 목사 / 청소년수련회 총괄

청소년
중등부 여름수련회

팝콘이와 함께 떠나는 CHOO CHOO 기차여행!

청소년수련회 팝콘트리 중등부는 7월 18일(금)부터 20일(주일)까지 'Rejoice, Always!' 빌립소서 4장 4~7절까지 주제 말씀을 가지고 2박 3일간 홍천으로 여름캠프를 떠납니다. 특별히 이번 캠프는 기차여행을 컨셉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첫째 날에는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며, 출애굽기 19장 5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 예수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며 Realize역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둘째 날, 주제 말씀을 암송하고 'Always, Rejoice'의 주제를 알아가는 코너 학습과 더위를 날려 줄 물썰매와 물놀이를 통해 공동체성을 기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중등부가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한 가족임을 알게 되며, 집회를 통해 빌립소서 2장 5~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며,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Relation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소서 2장 5~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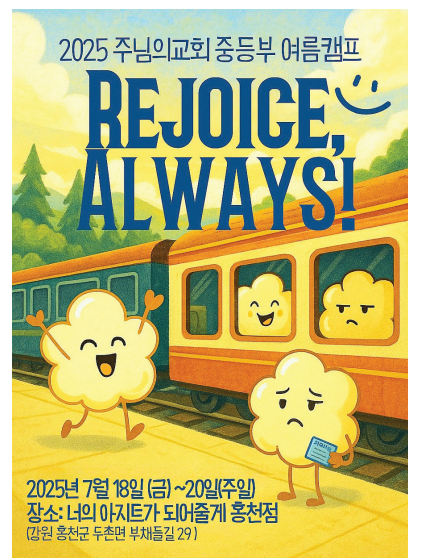
마지막 날에는 첫째 날과 둘째 날에 깨달은 내용을 돌아보고, 주제 말씀인 빌립소서 4장 4~7절 말씀을 통해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팝콘이가 되길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번 캠프에 최종 종

착역인 Rejoice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소서 4장 4~7절)

기차가 경적을 울리며 출발을 알리듯 이번 캠프가 중등부 팝콘이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경적이 되어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진행되는 캠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팝콘이들의 마음을 주관하사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또 학업으로 지친 학생들에게 참된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중등부 여름 캠프를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찬양 전도사 / 중등부



청소년
고등부 여름수련회

REJOICE, ALWAYS -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청소년수련회 비전트리 고등부는 오는 7월 18일(금)부터 20일(주일)까지,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로델힐링타운에서 "REJOICE, ALWAYS"라는 주제로 2박 3일간의 여름수련회를 떠납니다. 이번 수련회는 빌립소서 4장 4~7절 말씀 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4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입시 경쟁과 성과 압박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현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타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돌아볼 여유가 없이 스스로에게 매몰된 삶에는 결코 참된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없게 합니다. 청소년 친구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누구이며, 주님이 주신 고유한 길과 비전을 찾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마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다면 염려와 걱정으로 매 순간 일회일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다

우리가 유한한 죄인이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구원자를 간절히 찾게 됩니다. 복음은 죄인 된 우리를 저주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 성령님의 중보의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것을 깨달을 수 없지만, 주님

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허락해주셨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다

귀한 청소년들이 이번 수련회에 기간 동안 공동체 프로그램과 신나고 뜨거운 집회, 물놀이 등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평생 함께할 믿음의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먹고, 주어진 삶을 살아갈 힘이 충전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을 잃고, 지쳐 쓰러져가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들고 나아가는 청소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름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깊이 만나주시길, 모든 프로그램과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기를,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현상이 되길 함께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JOICE, ALWAYS'

김계원 목사 / 고등부



유소년
여름사역

“부흥대작전”과 “True North” - 믿음을 세우는 시간

유년부 · 초등부 · 소년부

올여름 주님의교회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는 “부흥대작전”이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에스겔 37장 14절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획된 이번 성경학교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 있는 영적 존재로 다시 일어나는 회복과 부흥의 시간이 되도록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년부는 7월 26일(토)부터 27일(주일)까지 무박 2일 동안 주님의교회에서 진행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5 SUMMER MINISTRY

유소년 여름사역

유년부	초등부
부흥대작전 7.26(토)~27(주일) 주님의교회	부흥대작전 7.25(금)~27(주일) 너리굴 문화마을
소년부	EM
부흥대작전 7.25(금)~27(주일) 사무엘동산	True North 7.19(토)~20(주일), 23(수) 주님의교회

초등부는 7월 25일(금)부터 27일(주일)까지 안성 너리굴 문화마을에서 자연 속에서의 신앙훈련과 공동체 활동을 중심으로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소년부는 초등부와 같은 기간에 경북 상주의 사무엘동산에서 말씀과 찬양, 기도 중심의 깊이 있는 영적 프로그램을 통해 믿음을 더욱 단단히 세워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EM Summer VBS

EM(English Ministry)은 “True North”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따라 7월 19일(토)부터 20일(주일), 그리고 23일(수)까지 무박 2일 일정으로 주님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중심 메시지는 “예수님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변함없는 친구이자, 인생의 진정한 방향(참된 북극성)”이라는 것입니다. 알래스카의 광활한 자연-장엄한 산맥, 거센 강물, 찬란한 빙하, 그리고 신비로운 북극광-을 상상 배경으로 삼아, 혼란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곁에 계시며, 결코 변하지 않는 반석과 같은 친구이심을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심어주고자 합니다.

올여름 말씀 앞에 서는 모든 유소년 어린이들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고, 주 안에서 참된 부흥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와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훈 목사 / 유소년총괄



전화상담부

자기돌봄세미나 소감

고통의 나눔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

평소에는 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세미나 중 있었던 두 번의 나눔은 제게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나눔은 세상의 나눔보다 훨씬 더 깊고 진실하게 다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쁨은 비교적 쉽게 나눌 수 있지만, 고통은 그렇지 않기에 서로의 아픈 시간을 함께 되새기며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확인하고, 감사와 다짐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혜경 집사 / 전화상담부

전화상담부

자기돌봄세미나 소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고통을 나누는 시간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고통 나누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세미나는, 삶 속에서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고통을 마주하면서도,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새롭게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단지 강의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진실하게 마음을 열고 함께 고백해 준 동역자들의 나눔은 참석자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은혜의 시간을 마련해주신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도로 준비하고 따뜻하게 섬겨주신 스태프 여러분, 그리고 그날의 주인공이 되어준 모든 참석자 한 분 한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미나는 끝이 아닌 시작이며, 우리 각자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의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현숙 권사 / 전화상담부

가정사역원
아름다운부모학교

학부모들이여, 아름다운부모학교를 놓치지 맙시다

교회 복도를 지나다 아름다운부모학교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 아직 곁에 있지만 곧 떠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돌아보고 회개와 반성, 그리고 진심어린 사과와 마무리의 점을 찍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망설임 없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찬양대도 섬겼지만, 예배가 멈춰 있는 아이. 그 아이와 나의 인연은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는데 나에게 자녀를 보내신 그 하나님에 대해 아이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말씀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하셨지만, 그렇게 가르친 기억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세속적인 시선으로 자녀를 키웠습니다. “교회학교가 가르쳐주겠지, 학교가 잘 교육하겠지...”라는 안일함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의는 그 생각을 뒤집어 주었습니다. 신앙교육이든 학교교육이든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며,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로 설 것을 도전하였습니다. 학교는 위탁의 공간일 뿐, 교육의 주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라는 말씀에 깊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교육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로서의 자녀를 바라보지 못하고, 성품이나 인격보다 성적과 성취에 더 마음을 쏟았던 지난날이 회개로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 교육을 미리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회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현재 교육 현장은 참으로 힘겹습니다. 아이들의 생각과 삶은 아픔이 가득하고, 교실마다 고통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복음이야말로 교육의 소망이며, 기독교 세계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이 시대 부모의 진정한 정체성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양육의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삶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과 같을 것입니다. 세속적 사고에서 돌이켜, 진정한 기독교학부모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부모학교는 복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환한 미소로 맞이하는 스텝분들, 진심이 담긴 강의, 따뜻한 차와 간식, 아름다운 테이블과 따뜻한 나눔이 있는 자리를 많은 부모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개강 때 더 많은 부모들이 함께하기를 기대하며, 소망의 기도를 올려봅니다.

장혜정 권사 / 6교구



전화상담부
자기돌봄세미나

자기를 바라 ‘봄’

“마음 깊숙이 꽃힌 언어는 지지 않는 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습니다.”
- 이기주, 『언어의 온도』 중에서

주님의교회 전화상담부는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마음이 지친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왔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듣고 그 슬픔을 기도로 품는 상담자의 자리는 따뜻하지만, 때로는 무겁고 외로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타인의 아픔을 오래도록 품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화상담부는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전화상담사 자기 돌봄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소망교회 상담실 최진량 전도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상담자의 내면을 성찰하며, 자기 이해의 중요성과 회복의 길을 함께 나누는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여는 시간을 시작으로, 감정 카드를 활용해 내면의 감정과 아픔을 시각화하고, 이를 언어로 표현하며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서로의 고백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기도로 이어지는 나눔 속에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흘렀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활동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소중한 믿음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상담자의 자기 이해 부족이 공감 결핍, 감정 소진, 윤리적 혼란으로 이

어질 수 있음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담자의 자기 돌봄이 단순한 감정 관리나 휴식이 아닌, 사역의 본질이며 곧 전문성과 지속 가능한 섬김의 기반이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주일 광고를 통해 전 교우에게 열려 있었기에 더욱 풍성했으며, 함께한 모든 이들이 자기 돌봄의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깊은 위로와 회복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은혜의 흐름 속에서 전화상담부 사역에 감동을 받아 새롭게 봉사자로 결단한 분도 계셨습니다. 상담자의 회복이 누군가의 회복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이 세미나는 우리 안에 ‘다시 일어서는 믿음’, ‘함께 걸어가는 삶’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타인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며, 전화상담부는 앞으로도 ‘단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배운환 목사님의 지도하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세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품는 걸음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진주현 집사 / 전화상담부

자기 이해가 중요한 이유

1. 자기 이해 없는 돌봄은 방향을 잃는다
2. 자기 이해는 진짜 욕구를 발견하게 한다
3. 자기 이해는 한계를 수용하게 한다
4. 자기 이해는 자기 연민과 연결된다
5. 자기 이해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기를 발견하게 한다

(사)섬김과 나눔
문화소외지역지원
강릉제일교회

하나님 안에서 누린 특별한 나들이, 서울 1박 2일

(사)섬김과 나눔에서는 6월 초에 문화소외지역의 어린이들이 서울 나들이를 통해 넓은 세상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강릉제일교회 유초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서울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서울 나들이가 쉽지 않았던 어린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1박 2일을 보내었고, 나눔의 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 나들이에 참여했던 어린이와 선생님들의 소감을 공유합니다.

“와~ 롯데월드에도 간다고?” 우리는 유초등부 교사 모임을 하면서 뜻밖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었지만 주님의교회에서 강릉제일교회 유초등부를 후원하여 서울로 초대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교회에서 지방의 교회들을 오랫동안 후원과 섬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봉사를 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축복받은 아이들이구나 생각하면서 주님의교회를 찾아보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은 설렘과 즐거움을 가득 안고 서울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롯데월드에도 도착한 아이들의 표정은 너무나 밝고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 또한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신앙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으로 향하였습니다. 이곳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가보는 건 나 또한 처음이라 무척 설레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한 후 묘원을 둘러보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소 생소했을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아

서 설명을 다 들을 수는 없었지만 조용한 가운데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으며 복음 전파를 위해 어떤 헌신을 했는지 몇몇 선교사님들의 삶을 잠시나마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진지한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선교사님들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이 경험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는 우리 아이들의 작은 찬양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찬양을 부르고 울동을 따라 하며 즐거워하고 순수하며 천진난만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천국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하면서 찬양의 가사대로 성령 충만한 은혜가 가득 부어지길 기도했습니다.

또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강릉제일교회 유초등부 아이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 주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일의 행하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유초등부를 섬겨주신 주님의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유초등부 교사 / 강릉제일교회

서울탐방을 통해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며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가고 싶었던 장소를 직접 가보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면서 서울이라는 도시를 또다시 친구들과 가고 싶어졌습니다. 처음 간 곳은 롯데월드였습니다. 처음 기다릴 때 이 정도로 기다려야 하나 생각이 들었지만, 친구들과 놀이기구를 타면서 웃고 떠들다 보니 그런 생각은 없어졌습니다.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한 시간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간 돈가스집에서는 특별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친구들이랑 선생님들과 같이 먹으니 특별한 음식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숙소에서는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 수 있었고 친구들과 같은 공간에서 지내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낮선 환경이었지만 함께여서 그런지 금방 편해졌고 밤늦게까지 놀다가 정리하는 시간도 좋았습니다. 다음날 방문한 한강에서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약간 시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강라면을 먹었을 때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은 가장 인상 깊은 곳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보며 그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지금의 교회가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점심에는 피자 뷔페에서 식사를 했는데 활동한 뒤 먹는 음식이라 그런지 더욱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피자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 더 좋았습니다. 그다음 방문한 경복궁에서는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궁의 웅장한 모습과 조선시대의 분위기가 고

스란히 느껴졌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렇게 가까이서 체험해보니 좋았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서울탐방은 단순히 즐기는 여행이 아니라 여러 장소 방문을 통해 서울의 역사, 문화, 일상까지 두루 경험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빈 / 강릉제일교회 유초등부



현충일에 서울에 가게 되어 너무 기대되었다. 아침 일찍 출발해 힘들었지만 크고 멋진 롯데타워를 보니 힘들었던 기분이 싹 날아갔다. 롯데월드에서 신나게 놀다 뒤에 내가 좋아하는 유선근 부장 선생님이 다니셨던 주님의교회에 가게 되었다. 엄청 크고 멋진 교회였다. 그곳에서 인터뷰하게 될 기회가 생겼는데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 질문을 받고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난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답하였다.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이미 다른 도움을 받아, 남에게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람인 것 같았다.

롯데월드에서 신나게 놀다 뒤에 내가 좋아하는 유선근 부장 선생님이 다니셨던 주님의교회에 가게 되었다. 엄청 크고 멋진 교회였다. 그곳에서 인터뷰하게 될 기회가 생겼는데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 질문을 받고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난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답하였다.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이미 다른 도움을 받아, 남에게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람인 것 같았다.

교회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양화진에 갔다. 양화진이 처음에는 어떤 장소인지 몰랐다. 그곳에서 영상 하나를 봤는데 외국인 선교사분들이 우리나라에 기독교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일하는 내용이었다. 하나

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에 말씀을 전해주시어서 감사했다. 영상 내용 중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고, 내가 이곳에 올 수 있어 감사했다. 양화진에서 글씨가 나오는 그릇, 선교사분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움직이는 사진, 처음 한글로 쓰인 성경 등등 많은 것을 보았다. 열심히 구경한 후에 밖으로 나와서 관계자분이 외국인 선교사 일곱 분의 묘를 보여주고 설명도 해주셨다.

열심히 구경한 후, 경복궁에도 갔다. 정말 크고 멋진 곳이었다. 그리고 수문장 교대의식을 보았는데 진짜 멋있었다. 이렇게 서울 여행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신 교회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진예장 / 강릉제일교회 유초등부**



교사일기
유치부

우리, 큰 집으로 이사왔어요

새로운 2025년이 시작됨과 함께 부서실 이동이라는 유치부의 큰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6세, 7세 어린이들, 선생님들과 지하 유치부실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며 많은 추억과 은혜가 가득 차 있었던 곳이라 부서실을 이동하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이라 믿고 매 주일 모일 때마다 집을 정리하고 또 정리하며 새 유치부실로 이동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 끝에 드디어 2025년 6월 주님의교회 유치부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곳곳에 정리해 두었던 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일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그런 힘과 지혜가 쏟아졌는지 총무 선생님의 차에 짐을 실어 나르고, 무거운 짐들은 남자 선생님들의 놀라운 힘으로 들고, 그 외 짐들은 여자 선생님들이 손에 들고 날라 모든 짐들을 순식간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도착한 신축체육관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았습니다.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유치부실이라 생각하니 생소하고 어색하여 걱정이 되었습니다. “와~~~~ 정말 크다!” 저의 첫 마디 말이었습니다. “우리 큰 집으로 이사 왔어요!” 하며 선생님들과 웃으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주부터 아이들과 함께 앉아 예배드릴 의자와 반별로 모여 말씀 공부를 할 테이블을 하나하나 꺼내어 닦으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치부실이고, 의자와 테이블 모두가 하나님께서 준비해주신 것이라 생각하니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빠르고 정확하게 이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전도사님

과 선생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더운 여름, 힘든 이사를 안전하고 감사하게 잘 할 수 있음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 드디어 6월 첫 번째 주일, 새로운 유치부실에서의 첫 예배날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크고 넓어 어떻게 이곳에 채울 수 있을까 염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신축체육관 로비와 유치부실은 딱 차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채워진 알록달록 풍선 장식들과 헬륨 풍선 선물들, 그리고 스크린, 찬양대석, 모든 의자와 테이블이 예배실로 채워졌습니다. 낮설지만 기대감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유치부실을 찾아왔습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더 걸어서 와야 하는 유치부실이지만 부모님들께서도 새 유치부실을 보고 다들 좋아해주셨고 감사해주셨습니다.

나의 염려와 다르게 아이들은 금세 예배실에 적응하며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찬양 시간에는 음향이 좋아서 그런지 마치 콘서트에 온 듯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며 하나님께 더 귀한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전에 바닥에 앉아 예배드릴 때는 드러눕거나 집중을 못했는데 이제 자기 의자에 앉으니 말씀에도 더 집중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치부 어린이들의 영성은 교회에 오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 예배, 첫 마음을 잘 기억하고 유치부 아이들이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기뻐하며 달려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사역을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선생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혜원 집사 / 유치부**

성도의 시

오월의 눈(雪)

지난날이 문득 떠올라
아려움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땅에 마음을 그리다가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불현듯 눈앞에 다가왔다

초여름 오월에
눈을 보리라 생각하지 못하였다
녹색의 나뭇잎 위에 소복이 솟아난
네 개의 열십자 하얀 산딸나무 꽃잎이
나무 위에 쌓인 눈의 형상으로
처연히 존재하고 있었다

도시에서 오월의 눈은 볼 수도 믿을 수도 없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삼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믿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 나무는 사람 손 없이 영근 산딸기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 산딸나무라는 이름을 얻고
인간의 문명을 뛰어넘어
오월의 눈을 보여 주었다

십자가는 이 나무로 만들었다고
넉 장의 꽃잎이 십자가를 닮았다고
가을에 새빨간 산딸기 모양의 열매가
붉은 핏방울처럼 보인다고 할 때
나의 고통을 넘길 곳이 그곳인가

임성수 안수집사

성도의 시

선교 140년을 기억하며 다짐합니다

아아, 140년이라
참으로 암울하던 시대
불모의 땅 조선
어둠의 땅 조선
새싹이 움트던 1885년 4월
예수향기 날리던 제물포 항
파란 눈의 언더우드·아펜젤러
희망의 등불로 제물포에 왔네
이 땅에 복음 들고 희망으로 왔네

주여,
지금의 조선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도 없고, 의원도 없습니다
멸시와 천대만 가득한 땅
그러나, 복음 심기만 하면
머지않아
은총의 땅 되리라 믿습니다
꺼지지 않는 횃불되리라 믿습니다

이 땅을 처음 밟은 선교사
님의 열정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원치 않고
미래의 노후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다 할 때 까지
오직예수, 오직믿음
조선 땅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그것,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세속화된 한국교회 회복되고
부흥의 새 시대를 맞이하여
언더우드·아펜젤러 선교사를
우리가 지금 기억하듯
먼 훗날
한국교회 1천만 성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된 것을
부흥과 연합으로 새롭게 된 것을
다음세대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항존직 임직 받을 때 맘으로
목사안수 받을 때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고 결단하여
교회와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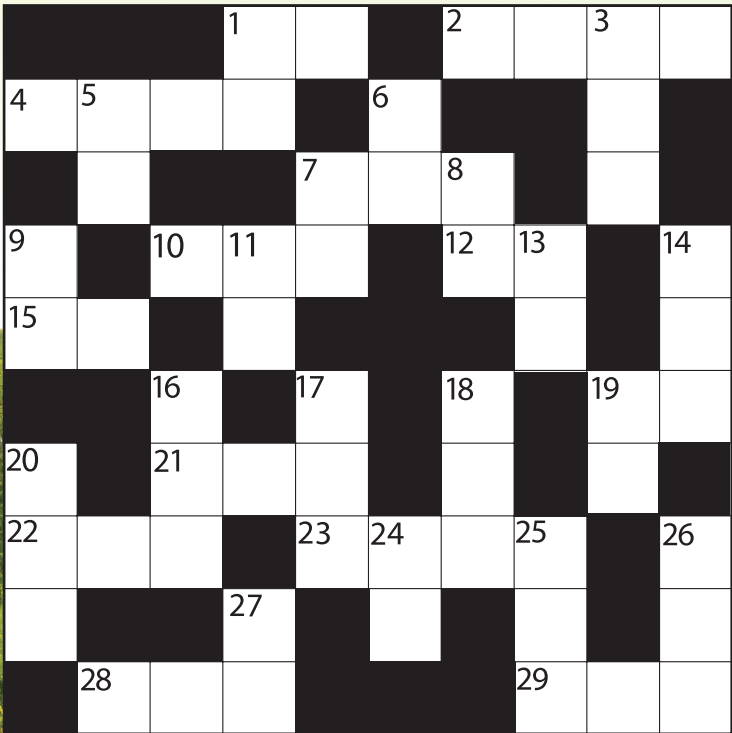
오직 목양일념의 마음
오직 사명전심의 마음
오직 진리수호의 마음
오롯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의 능력 회복으로
민족의 희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이
이 땅에 다시피게 하소서
이 땅에 가득하게 하소서

이재수 장로 / 면일교회(평양노회) 원로장로, 평신도신문사 사업국장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 풀이

요한복음 편

이번 호는 신약의 네 번째 권인 <요한복음> 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4대 복음에 속합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누가복음 편 정답

데		야	곱		진		엘리	야
나	사	렛		마	리	아		고
리			회	당		들		강
온		합	당			기	도	
	나		장	차		요	한	앗
가	이	사		라		셉		사
야		가	브리	엘		갈	릴	리
바		라		리		대		온
	각			나	사	로		의
데	오	빌	로		벳		이	사

가로 힌트

1. 크게 노함. 성경에서는 대개 하나님과 같은 존엄한 분의 분노를 말한다. (요 3:36)
2. 갈릴리 서북쪽에 있는 지역. 예수님은 공생애 초기에 주로 이곳에서 활동하셨다. (요 2:12)
4. 큰 돌을 파서 만들어 곡식이나 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한 용기. 예수님이 처음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요 2:6)
7. 유대 땅에 사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을 두루 말하기도 한다. (요 1:19)
10. 요단강 동쪽에 있던 마을.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다. (요 12:21)
12. 본인.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쓰는 말이다. (요 3:19)
15. 동물이나 식물이 갖고 있는 삶의 기운. 성장하고 자손을 낳는 구조적인 원리를 말한다. (요 5:24)
19. 뜨거운 기운. 무언인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기운을 상징적으로 말하기도 한다. (요 4:52)
21. 머리를 흔드는 몸짓. 머리를 움직여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요 13:24)
22. 나사로가 살던 마을.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다. (요 11:1)
23.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일의 결과로. (요 3:17)
28. 구약시대의 선지자.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했다. (요 1:21)
29. 무리를 이끄는 사람. 여러 사람을 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요 3:1)

세로 힌트

1. 참된 도리와 바른 이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본질을 의미한다. (요 1:14)
3.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도시. 예수님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다. (요 18:5)
5. 늘. 언제나. (요 6:34)
6. 군인들로 구성된 집단. 전쟁에 대비하여 여러 훈련을 받는다. (요 18:3)
7.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은 삼십에 예수님을 팔았다. (요 6:71)
8.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불렀다. (요 1:51)
9. 홀로 태어남. 다른 형제나 자매가 없는 외아들이나 외딸을 말한다. (요 1:18)
11. 하루 중에서 해가 뜨기 직전의 시간. 동녘이 어슴프레 밝아올 때를 말한다. (요 18:28)
13. 어떤 일이나 사건을 머리 속에 간직하는 것. 이것을 못하면 '망각'이라고 한다. (요 2:17)
14. 평화의 새로 알려진 조류.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이렇게 보였다. (요 1:32)
16. 아버지 중 여자. (요 2:1)
17. 사실이 아닌 말. 거짓으로 하는 말. (요 8:44)
18. 기혼 샘에서 흐른 물을 모아 만든 연못. 히스기야 왕 때 암벽을 뚫어 만든 수로의 끝에 있다. (요 9:7)
19. 나무의 꽃이 떨어지면 맺히는 결실. 사람이나 동물의 먹이가 된다. (요 4:36)
20.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던 도시. 갈릴리 지역의 수도였다. (요 6:1)
24. 흘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무엇인가에 혹하여 제 정신을 잃는 것을 말한다. (요 7:12)
25. 아버지 중 남자.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지칭하기도 한다. (요 1:14)
26.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여 미래를 말하는 사람. 예언자라고도 한다. (요 4:19)
27. 거칠고 넓은 들판. 예수님은 이곳에서 40일 동안 기도했다. (요 3:14)

헌혈행사

생명을 나눈 헌혈의 현장

할렐루야~ 지난 6월11일에 열렸던 생명 나눔 헌혈 행사,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헌혈 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목사님의 기도와 윤경수목사님, 이태욱목사님, 청년부 박성철목사님의 기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남선교회연합회, 여전도회연합회의 협조와 후원, 특별히 청년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 덕분에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헌혈 행사에는 총 59분이 헌혈을 신청해 주셨고, 이 중 29분이 헌혈하실 수 있어서 헌혈해 주셨습니다. 헌혈하시지 못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당일날 아침 식사를 거르셔도, 특정국 여행, 드시는 약.. 등등 건강상의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헌혈하실 수 있는 이가 적은 이유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특별한 조혈모세포 기증자 모집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을 통해 생명 나눔의 큰 뜻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조혈 모세포 기증에 채혈과정 위험하다고 꺼렸는데, 현재 과학의 발달로 몸속에 바늘이 꽂히는 것을 입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최고의 간호사가 채혈하는 안전한 시술입니다. 소아백혈병과 혈액암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완치의 기쁨을 느끼게하고,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는 새 삶을 주는 아름다운 기증이 바로 조혈 모세포 기증입니다. 이는 채혈과 달리 검사일, 기증일 최소 2일 이상의 시간 봉사도 따릅니다. 그래서 기증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번 헌혈 행사에도 헌혈증을 기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헌혈증은 수혈이 필요하신 교우 누군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혈에 사용될 필요가 있으시면 교구 목사님께 알려서 금년 담당 제3남선교회 회장 이성균안수집사가 제공합니다. 헌혈증을 기부하실 교우께서는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010-7773-7774).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행사를 돌아보니,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수고하신 적십자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더하시길 소원합니다.

이성균 안수집사 / 제3남선교회

중보기도부
특별월례회

사랑의 비밀, 행복한 기도자

중보기도부 7월 특별기도회가 '사랑의 비밀, 행복한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2025년 7월 3일 (목) 오전 10시 30분부터 주님의교회 대예배실에서 중보기도부원과 일반 성도들이 참석하여 박리부가 사모(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열렸습니다.

경배와 찬양 후에 박리부가 사모가 중보기도의 기쁨과 함께하는 공동체에 말씀을 전해주시고 참석자들과 '주여'삼창 후에 합심기도를 함께하며 마지막으로 박민규 목사가 진행하는 기도회로 7월 월례회를 마쳤다.

중보기도부에서는 릴레이 기도실 사용 후에 에너지 절약으로 에어컨과 전등 점등을 부원들에게 꼭 부탁을 하였다.

함글함글



501호 십자말풀이 정답자

정현정 집사 (5교구), 최현진 (소년부)

* 지난해 정답자 '김해중 권사'는 '김해중 권사(5교구)'로 수정합니다

십자말풀이와 함글함글 기사를 읽고 소감을 제출해주시는 분께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십자말풀이는 함글함글 지면에 답을 직접 쓴 사진을, 기사 소감은 아래한글이나 워드로 A4 1장 이상 분량으로 작성한 파일을 함글함글 메일 (pclhamletter@naver.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는 이름, 직분, 교구,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일정

7/12(토) - 13(주일)	유아숲 여름성경학교
7/13(주일)	정기당회
7/18(금) - 20(주일)	청소년숲 여름수련회
7/19(토) - 20(주일), 7/23(수)	EM Summer VBS
7/23(수)	2/4분기 제직회
7/25(금) - 27(주일)	유소년숲 여름성경학교

알립니다

1. 2025 주님의교회 비전트립

필리핀 (몬탈반) : 7/12(토) ~ 7/15(화)
필리핀 (유성훈) : 7/23(수) ~ 7/28(월)
필리핀 (몬탈반 - 청소년숲) : 8/3(주일) ~ 8/7(목)
필리핀 (송지형) 8/7(목) ~ 8/12(화)
키르기스스탄 (윤바나바) : 9/23(화) ~ 9/30(화)

2. 2차 성지순례

일정: 6/30(월)~7/10(목), 32명
순례지: 튀르키예, 그리스, 이탈리아

모집합니다

1. 주방봉사자(마무리팀)

시간 : 주일 오후 12:00 ~ 2:00
문의 : 서정하 장로(010.9554.9715)

2. 시온(2부) 찬양대원 모집

파트 : 테너
문의 : 김형준 집사(010.5132.4909)

3. 주차안내부원

시간 : 1부(2명), 2부(3명), 3부(3명)
문의 : 유신식 안수집사(010.5219.3902)

4. 한국어 교사 모집

문의: 김영화 집사(010.8417.4767)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임익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